

완도군, 해조류산업 지원사업소 출범

해조류박람회 주제관 내
업체관리·시장개척 등 지원

완도군이 지역 특화산업인 해조류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지원하기 위한 해조류산업 지원사업소를 본격 운영한다.

완도군은 최근 2014 완도 국제 해조류 박람회 주제관에서 김중식 군수를 비롯한 기관단체장,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해조류산업 지원사업소 현판식을 가졌다.

해조류산업 지원사업소는 완도 국제 해조류박람회 개최에 따른 해조류 가치 상승, 생산량 증산, 소비시장 확장, 판매 증대 등 관련 산업 활성화 등 해조류산업의 구조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전담기구다. 사업소는 공무원 10명을 정원으로 구성됐다.

해조류산업 지원사업소 안환옥 소장은 “해조류 생산·가공업체 관리, 해조류 관련 민·관 협력, 시장개척, 수출상담, 해조류산업 인프라구축, 한국해조류산업 발전 협회 운영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고 설명했다.



김중식(가운데) 완도군수와 기관단체장들이 최근 해조류박람회 주제관에서 해조류산업 지원사업소 현판식을 갖고 있다. <완도군 제공>

김중식 완도군수는 “해조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완도군이 박람회를 통해 놓은 불씨를 중앙정부와 관련 지자체가 완도군과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가기를 바란다”면서 “지난 40여년 동안 원시적인

생산과 고비용, 저효율의 유통체계를 개선하는데 해조류산업 지원사업소 기능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조류박람회 주제관은 해조류

관련 특화사업의 홍보관, 수출지원센터, 해조류 상품 전시판매장 등 해조류에 대한 관심과 비전을 제시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해남전북’ 지리적표시 수산물 제19호 정식 등록

수산물품질관리원 심의·인증
상품명 배타적 사용·육성 지원

해남전북이 지리적표시 수산물로 정식 등록됐다.

해남군은 “해남 전복이 국립 수산물 품질관리원의 지리적표시 등록 심의 및 2개월간의 공고 기간을 거쳐 ‘수산물 지리적표시’ 제19호로 정식 등록됐다”고 26일 밝혔다.

해남 농·수산물 가운데 해남전복을 비롯해 고무마·배추·김이 ‘지리적 표시’에 등록돼 있고, 세발나물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등록돼 있다.

군은 해남 전복이 ‘지리적 표시’에 등록됨에 따라 상품명의 배타적 사용이 가능해지고, 품질향상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등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 해남전복에 대한 지적재산권 확보와 고소득 어패류 보호 육성,

품질향상, 명품화, 차별화,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 유치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지리적 표시 등록을 통해 품질과 안정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아져 해남전복의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해남전복의 명품브랜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남지역에서는 관내 262여가에서 연간 762t의 전복을 생산하고 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보성, 스포츠 열기로 ‘후끈’...축구·골프대회 등 잇따라 개최

매주 카페베네 U리그 축구대회
내달 2일 KLPGA 점프투어

보성군이 잇따라 축구와 골프 대회 개최 등 스포츠 열기로 달아오르고 있다. 또 나이지리아 역도 국가대표 선수들이 선진기술 습득을 위해 다음달 보성에서 구슬땀

을 흘릴 예정이다.

26일 보성군에 따르면 매주 금요일 벌고 축구장에서 ‘2014 카페베네 U리그 호남권역 축구대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대한축구협회(KFA) 주관의 유소년(U11~15) 상비군 육성 프로그램인 ‘전남지역 골든에이지’가 격주 단위로 열리고 있다.

또한 6월 2일부터 조성면에 위치한 보성컨

트리클럽에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점프투어 시드전을 시작으로 5~8차전 점프투어가 열린다.

6월 12일부터 15일까지는 ‘2014 남자프로골프(KPGA) 보성CC클래식’이 전년에 이어 개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나이지리아 역도 국가대표 선수들이 6월 한 달 동안 보성 다목적 트레이

닝장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하며 한국역도의 선진 기술을 습득할 예정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군관계자는 “앞으로 경기장 확충과 더불어 기존 시설물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전국에서 찾는 지역의 대표적인 스포츠 일번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전북 소식



제20회 지리산 바래봉 철쭉제를 찾은 관광객들.

남원 바래봉 철쭉제 폐막

세월호로 기념행사 취소 불구
관광객 30만 방문 15억 효과

남원 지리산 바래봉 철쭉제가 막을 내렸다.

남원시 운봉읍애향회(회장 이정기)와 운봉읍사무소(읍장 김희옥)는 “지난 4월 26일 개장해 25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 ‘제20회 지리산 바래봉 철쭉제’에 30만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고 밝혔다.

올해 바래봉 철쭉제는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의 아픔을

같이 하기 위해 모든 기념행사를 취소하는 등 차분하게 진행됐다.

축제 기간동안 청정 농·특산물 전시·판매관과 제품 판매관에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홍보와 판매에 주력했다. 특히 주말에 셔틀버스를 운행해 관광객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남원시 운봉읍애향회 관계자는 “올해는 ‘세월호’ 사고로 인해 예년보다 바래봉을 찾는 관광객이 많이 감소한데다 소비마저 위축됐지만 지역경제에 15억여원의 직·간접 파급효과를 봤다”고 말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정읍시 ‘고품질 흑미’ 생산 주력

우량종자 생산능가 각종 지원

정읍시가 고품질 흑미(黑米) 품종 육성에 발 벗고 나섰다.

정읍지역 흑미 재배면적은 1000ha로 전국 5000ha 중 2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량종자가 부족해 농가들이 고품질 흑미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고품질 쌀 신육성 품종 확대 시범사업으로 보급종으로 나오지 않는 우량 흑미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 및 농기계를 지원키로 했다.

기술센터는 이를 통해 정읍의 흑미 재배단지에도 보급할 수 있는 우량 흑미종자를 생산해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기술센터는 10ha에 1억원을 지원해 전북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신농흑찰’과 ‘흑향찰 1호’, ‘논근흑찰’, ‘조생흑찰’ 등 다양한 품종을 채종포에 운영해 여러 종류의 흑미 우량종자를 생산할 계획이다.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흑미는 항산화 작용이 탁월한 ‘안토시아닌’을 함유하고 있어 웰빙 분위기를 타고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고창 채종원 적합수종에 ‘편백나무’ 선정

개량종자를 공급하기 위해 고창군에 조성되는 채종원(조립용)으로 쓰이는 우량한 종자를 생산하는 산)에는 편백나무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국립 산림품종관리센터는 26일 전문가들로 구성된 ‘채종원 수종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추위에 잘 견디

면서도 고급 목재로 활용되는 편백나무를 적합 수종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생장기 우수한 국내의 편백나무 1200그루를 적목, 증식한 후 2016년 6ha의 채종원 부지에 옮겨심기로 했다.

/고창=유창영기자 cy0370@

NAVER 광주 소리큐 **NEW** 소리큐 보청기 (음성증폭기) 제품 모델명 S20, S22, ST33

찾아오시는 길 전남대병원 맞은편 본죽2층

TV시청할때 강의를 들을때 핸드폰 통화할때 대화·상담할때

소리큐 보청기광주 호남총판 062) 227-1700

즉석요리 무한리필 OPEN 30년 전통돈까스 SALAD & PASTA COOK

Since 1983 **음성각** 유스퀘어점

유생촌 무한리필 돈까스

성인	10,900
초등학생	7,000
소인(미취학)	4,000
음료	무한리필 (콜라, 사이다, 워터, 주스)

즉석요리 얼리지는 생돈까스 30년의 노하우 샐러드 & 돈까스 스파게티, 랑수육, 미트볼 제육볶음, 치킨, 생선까스

유스퀘어점 ☎ 062) 671-1199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구 아이엘리시아)